

### 모아그룹 심헌문화재단, 169명에 장학금 전달



모아그룹이 후원하는 심헌문화재단(이사장 박치영)은 지난 24일 KBC광주방송 공개홀에서 2026학년도 '제21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수여식에서 심헌문화재단은 대학교 및 고등학교, 자치단체 등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가장 형편이 어렵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169명을 장학생으로 선발

했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총 2억 841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심헌문화재단 박치영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노력해 온 장학생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번 장학금이 각자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한국철도 광주본부, 1분기 사랑의 헌혈행사



한국철도 광주본부(본부장 이준구)는 24일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1분기 사랑의 헌혈행사'를 시행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광주, 광주송정, 목포 등 본부 관내 주요 거점에서 직원과 철도 고객들이 함께 참여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준구 광주본부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생명 나눔을 위해 헌혈에 동참해 주신 고객들과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 광주본부는 분기별 정기 헌혈 행사를 통해 생명 존중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정경진 통테일 법률사무소 대표 백혈병·소아암 환자 위해 성금 전달



정경진(사진) 통테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소속 구성원들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를 찾아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환아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아픈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정희기 장흥지체장애인협회장 250만원 상당 휠체어 2대 기탁



정희기 장흥군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지난 20일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 250만 원 상당의 전동 휠체어 및 낙상 방지용 휠체어 총 2대를 기탁했다. (사진)

이번 기탁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돕고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희기 회장은 2024년 인제육성장학금과 체육진흥 기금으로 5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2025년에도 나눔 복지재단을 통해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채본부장 kykim@

### 농협경제지주, 화순훈수센터 리뉴얼 개장식



농협경제지주 마트사업본부(본부장 변정근)는 지난 23일 스타벅스 광주계림점으로부터 오픈기념 '나눔 머그컵' 판매 수익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진)

2026년 광주시 1호 오픈 매장으로 새해 출발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나눔 머그컵' 수익금 기부는 스타벅스 코리아와 초록우산이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신규매장 오픈 시 진행하며 수익금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장민완 스타벅스 광주계림점장은 "성공적인

### 스타벅스 계림점, 나눔 머그컵 판매 수익금 기부



오픈과 더불어 초록우산에 후원할 수 있었던 너무 뜻깊은 기회였다"며 "어린이들의 행복한 성장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드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코모닝 대한민국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첫 번째 남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	10 시사기획 창(재)	1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15 찾아가는 푸르기교실(재) 45 팬티하이로2(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50 있다-있다 : 우리들의 패럴림픽	3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00 12 MBC 뉴스 25 오늘N(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위시켓
1	1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25 헬로키즈 TV생물도감2(재) 55 2시 뉴스외전	00 보석에네 건강 수다
2	00 KBS 뉴스 10 열린재널			00 뉴스브리핑
3	10 어린이동물티비(재) 40 성물 미라보기(재) 45 팔도밥상 스페셜(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코드네임(재)	55 기본 좋은 날(재)	00 광주전남통합 행정교육 설명회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영상앨범 산(재)	55 5시 뉴스와 경제	30 전국 TOP 10 가요쇼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00 실록 시즌2 15 준비된 엔드리스 러브 30 꽃잠 영화가 좋다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30 애니갤러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00 특집대담 송영길전대표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듣는다 50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황신혜의 같이 삽시다	5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05 첫 번째 남자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마리와 별난 아빠들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슈퍼캐치 진실의 눈	00 손석희의 질문들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50 은애하는 도적남아(재)	30 라디오스타	50 아니 근데 진짜(재)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2	00 KBS 중계식 (서울 윈터 뮤직 페스티벌)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꽃잠 영화가 좋다(재)	15 MBC 뉴스 25 35 웰컴 투 스포츠	20 도시락 스페셜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40 티시테시와 춤추고 노래해요!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50 풀비와 하이트의 직장승격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맛의 지도, 일본 소도시 여행 -천년 순례길, 오카야마)	12:00 EBS 뉴스 12	18:30 건축탐구 - 집
07:00 꼬마마법사 주니오니	12:10 손주 보러 세계일주 - 할매가 간다(재)	19:20 고향민국
07:15 무지개 갠지시 달린의 모험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7:30 뽀뽀뽀 뽀로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대만 여행, 대만족입니다 -오래된 시간을 걷다, 자이
07:45 나의 비밀친구 해치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1:35 한국기행 -나의 오래된 단골집 3부 현 이불 줄게 새 이불 다오
08:00 땡땡땡 땡땡땡	15:10 고향민국	21:55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08:20 수상한 방송국	15:40 마사와 곰	22:45 PD로그
08:50 메탈카트봇S 경찰의 귀환	15:55 불꽃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20 탑골스타 개천이	16:10 땡땡땡 땡땡땡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수상한 방송국(재)	
	17:00 페퍼 피그	
	17:10 도로리 문화센터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5일(음 1월 9일 庚午)

<p>48년생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단계이니 하나하나 심사숙고 하라. 60년생 자신이 해결할 역량이 충분하니 굳이 남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 72년생 회동이 있을 수이다. 84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자. 96년생 깊이 있는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 08년생 객관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37, 83</p>	<p>42년생 아차 하면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 54년생 주중에 따라서 선수를 따져야만 하느니라. 66년생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78년생 바탕에 대한 개선은 하지 않는다면 한계 정황에 봉착한다. 90년생 설의는 상태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자. 02년생 가까이 수렴하는 것이 백번 낫다. 행운의 숫자 : 49, 62</p>
<p>37년생 여러 가지가 동시에 속출하는 흐름이다. 49년생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61년생 기회만 제대로 포착한다면 아주 특별한 행운이 따르리라. 73년생 과장상의 괴로움은 보이니 결심은 대단히 달콤하리라. 85년생 문제점은 반드시 짚어주고 시정해야 하겠다. 97년생 지구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다. 행운의 숫자 : 02, 71</p>	<p>43년생 전후 사정과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 55년생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가려서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67년생 번거로움을 차치하고 솔선수범한다면 효과는 배가 된다. 79년생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91년생 초심으로 밀어붙이면 틀림없이 성사된다. 03년생 대단한 일을 접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8, 56</p>
<p>38년생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판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50년생 위험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으니 잘 살피고 다니는 것이 무난하리라. 62년생 마음만으로는 아니 되니 직접 표현해야 한다. 74년생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아야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86년생 단단히 매듭을 지어놓자. 98년생 개별 판단이 요구되는 면모이다. 행운의 숫자 : 81, 92</p>	<p>44년생 찾을 길이 없어서 막막하겠다. 56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68년생 성공이 눈앞에 와 있으니 말리는 말에 체격을 가하라. 80년생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에 이른다. 92년생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국이다. 04년생 성사되는 쪽으로 가다가 집힌다. 행운의 숫자 : 14, 73</p>
<p>39년생 중심을 잡지 않으면 혼돈에 빠지리라. 51년생 내세운다면 서로 맞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63년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5년생 사정을 잘 헤아려서 처리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87년생 무리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 중하다. 99년생 집중해야만 견뎌 낼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5, 59</p>	<p>45년생 큰일을 꾸무다거 눈앞의 현실을 망각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만 할 것이다. 57년생 첫 번째의 건이 가장 실속 있고 유력하다. 69년생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허탈해 할 수도 있는 날이 될 것이다. 81년생 극히 이례적이라 할 만하다. 93년생 원님 덕에 나날 불게 되리라. 05년생 재테크에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08, 76</p>
<p>40년생 시기가 아니라 완성도의 문제이니라. 52년생 긍정적인 마인드와 결단성 있는 진행이 성사로 이끌 것이다. 64년생 생각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 76년생 길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실상은 대동소이다. 88년생 예상대로 준비한다면 적기에 쓸 수 있다. 00년생 골격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65</p>	<p>46년생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58년생 단단히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예상된다. 70년생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면 대단히 불리해진다. 82년생 가까이 노출되어 있으니 팔을 벌여 피라. 94년생 들고 도는 세상의 이치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06년생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성과를 본다. 행운의 숫자 : 03, 85</p>
<p>41년생 정성으로써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사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53년생 패도난마해야 하는 마당에 이르렀다. 65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77년생 한번 결정된 일이라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도 무방하다. 89년생 치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01년생 구설수를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36, 87</p>	<p>47년생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까다로운 정황을 유연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59년생 내색할 필요까지는 없다. 71년생 주변의 시선에 얽매지 말고 자유롭게 펼쳐라. 83년생 막힌 물꼬가 시원하게 트이는 이치이다. 95년생 파격적인 진보가 있겠다. 07년생 파악하고 있는 바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를 감안하라. 행운의 숫자 : 05, 68</p>